

사드 비용... 美 재협상 vs 韓 합의 유효

맥마스터 보좌관 “재협상 전까지 기존 협정 유효” ... 재협상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 발언을 놓고 1일 청와대와 백악관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도리어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협의를 가지며 사드 비용 부담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후 협의 결과와 관련해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통화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부담과 관련한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였다.

청와대는 또 맥마스터 보좌관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염망을 염두에 두고 일관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

통령의 발언이 자국내 여론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란 의미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촉발된 사드 비용 청구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자 오히려 논란은 확대됐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한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10억달러 청구를 위해 기존 사드 배치 합의를 파기하고 비용 부담과 관련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날 안보실 명의의 문

자 메시지를 통해 “김 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 간 통화와 관련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 언급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못박았다.

양측의 통화 내용은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문상근 대변인을 통해 “사드비용 부담 문제는 한미 간 합의된 사항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보 당국은 맥마스터의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협상까지 유효하다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측 안보 당국의 바람대로 맥마스터 보좌관 발언의 진의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에 있지 않다고 해도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전망이 많다. 내년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시켜 우리 측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5년마다 체결되는데 2018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협상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다.

안보 당국도 이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드가)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며 사드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국방부도 이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사드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뉴스

더민주 꽃할배 유세단, 전북 온다

평균 나이 68.5세, 하지만 몸도 마음도 청춘 못지 않은 ‘꽃보다 할배 유세단’이 전북에 온다.

꽃할배 유세단은 2일 정음(정읍시정), 김제(김제장남), 군산(롯데미트앞)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다.

‘꽃보다 할배 유세단’은 정치.문화계 원로 4인방으로 1일 결성됐다.

꽃할배 유세단은 이철 전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문화재청장을 한 유홍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문화정책연구소장으로 활동해온 유시춘 작가, 5선 국회의원으로 풀무일을 창업하고 부천시장을 역임한 ‘원조 기부정치인’ 원혜영 의원이 참여한다.

또 김학민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유세단 감독으로, 정치권의 대표적인 훈남훈녀로 잘 알려진 김영호 박경미의원이 든든한 집권으로 꽃할배 유세단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복을 찾는다.

이철 단장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주셨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 국민의 삶은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근간은 무너졌다”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홍준표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겠다”

“전북에서 20% 이상 표 찍어 전북 사업 추진 동력 생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일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어보겠다”며 전북 지지를 호소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규제 거의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우리나라)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강성 귀족노조와 각종 규제 때문이다”며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어 전북 도민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예산만으로는 앞으로 30년, 50년이 있어도 안 된다”며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대거 끌어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 계획은 (내가)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바로 송하진 전북지사와 의논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만금 발전을 강조한 홍 후보는 전북 공약으로 ▲ 전주시 문화특별시 조성 ▲ 낙후된 동부권 지역 발전 ▲ 전주 탄소밸리 산업단지 지원 ▲ 무주~대구고속도로 건설 ▲ 금융중심 클러스터 조성 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전북 지역에서 최소 20% 이상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기업특별시’로 만들어보겠다”며 전북 지지를 호소했다.

“그레이트 전북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에 전북 사위인 내가 대통령이 되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된다”며 “5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후보와 골든 크로스(지지를 교차)가 발생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

전북 여성 1101명, 문재인 공개 지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전북지역 여성들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1일 ‘문재인을 지지하는 전북여성 1101명’ (가칭)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후보, 든든한 대통령이 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후보가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직장과 가정을 교차하는 일상에서 슈퍼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며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등 문 후보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책임감 강요와 경력단절, 성범죄 등 여성을 가로막는 커다란 벽은 반드시 해소돼야 할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지지 선언에 나선 1101명의 여성 가운데 민주당 여성당원은 약 20%이며, 80%는 일반 여성이라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밝혔다. /인재용 기자

강현욱 전 지사,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

강현욱 전 지사가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 전 지사는 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중심이 되는 개혁공정정부 수립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북은 참으로 오랫동안 인사차별, 예산차별에 시달려 왔다”며 “전북 7명의 국회의원들이 대선 선대위에서 핵심으로 뛰는 모습을 볼 때 전북 정치권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고 전북이 중심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현욱 전 지사는 안철수 지지와 함께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새만금 특별 고문직을 맡는다. /인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다니다
행복한 교습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급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